

# “억눌렸던 깊은 상처 힐링됐어요”

###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세월호 유가족 위한 ‘힐링법회’ 마련

7월 6일 오전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에 서너대의 승용차가 도착했다. ‘천만 인의 약속’ ‘세월호 가족버스’ 등 문구가 눈에 띄었다. 세월호 유가족임을 직감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국 서명운동에 나섰다. 울산 지역에 왔다가 이 중 20여명 정도가 사찰에 들른 것이다.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장 혜안 스님은 이들을 위해 소규모의 ‘힐링법회’를 대응전서 마련했다.

혜안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저도 어릴 적 가족을 잃어 막막한 슬픔을 느껴왔기에 여러분의 아픈 상처를 누구보다도 잘 안다”며 “잠시나마 사찰에서 현재 처한 아픔을 잊을 수 있는 힐링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황수경 명상리더십센터장이 바통을 이어받아 명상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황 센터장은 “명상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며, 힐링은 자기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입니다”라며 모두 자리에 누워서 5분간 명상 시간을 갖자고 독려했다.

잠시 후 법당안에 불이 꺼지고 법회에 참석한 50여명은 자리에 누웠다. 명상 음악만 들릴뿐 법당안은 고요했다. 다시 참석자들을 일으켜 세운 황 센터장은 “힐링터치”를 제안했다.

황 센터장은 “참석자들은 두 개의 큰 원을 만드세요. 그리고 각자 정해진 파트너에게 서서 손을 잡으세요. 저는 이것을 ‘힐링터치’라 부릅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안아주는 등 건강한 터치를 합니다. 하지만 점점 나이 들어 죽을 때가 되면 ‘힐링터치’를 그리워하지요. 인간의 본성 중 하나는 아주 건강하게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과 사람이 에너지를 주고받는 겁니다. 손을 맞잡고 잠시 눈을 감고 느껴보세요. 손을 맞잡은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마음과 마음의 따뜻한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과 사람이 진정으로 대면하는 순간이 명상과 힐링의 시작입니다”라고 프로그램을 이끌었다.

세월호 유가족인 홍영미씨는 “아들을 잃고 난 후 각종 단체에서 진행하는 힐링프로그램에 참여해 봤지만 오늘처럼 마음이 편안한 적이 없었다”며 “특히 혜안 스님께서 자신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이 7월 6일 세월호 유가족을 위한 힐링법회를 마련했다.

의 경험담을 말씀하시며 환한 웃음으로 용기를 북돋워 주시니 큰 위로가 됐다”고 심정을 밝혔다.

“힐링터치”는 서로 돌아가며 상대를 힘껏 안고 격려해주는 ‘허그’로 마무리 지었다. 이번 힐링 법회의 마지막은 그림치유 명상이었다. 황 센터장은 다시 하얀스케치북에 자신이 그리고 싶은 그림을 아무거나 마음대로 그리라고 주문했다. 이 프로그램에서 세월호 유가족들 일부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터트렸다.

“아들과 예전에 놀이 공원에 갔던 기억을 떠올려서 그림에 담았습시다. 그런데 그림 그리면서 이제는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만들 수 없었구나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며 너무 아들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앞에서 사연을 들은 유가족 및 법회 참석자들도 함께 소리내 울었다. 황 센터장은 “울음을 참지 마세요. 마음속에서 억압된 감정들을 끄집어 내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 집니다. 그리고 다시 삶의 용기가 솟아 나지요”라고 위로했다. 1시간에 걸친 힐링 법회는 그림 그리기 명상으로 끝을 맺었다.

제삼일 세월호 유가족 대표는 “가는 곳마다 행사가 많아 오히려 더 지친 마음이었는데, 오늘 치유 명상 법회는 그동안 막막했던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어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이런 귀중한 시간을 마련해 준 혜안 스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인사했다.

울산=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 2015년 완공 부산불교요양병원 건립

### 원효불원 7월 7일 기공식

부처님의 자비와 은혜를 회향하기 위해 원효불원(선원장 법산)이 부산불교요양병원을 건립한다. 7월 7일 부산 수영구 광안동 병원부지에서 부산불교요양병원 기공식을 가진 원효불원은 2015년 11월말 완공을 목표로 불사의 공적적인 첫걸음을 알렸다.

前 조계종 포교원장이자 감로사 회주인 혜승 스님은 발원문에서 “불사가 성취되면 불교계의 사부대중 모두가 주인이요, 안식처가 될 것이니 부처님과 사부대중 여러분의 원력이 부처님께 닿기를 바란다”며 부산불교요양병원의 원만한 불사를 발원했다.

이어서 원효불원 선원장 법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외롭고 나이 든 어르신들을 위한 요양병원을 건



부산불교 요양병원이 2015년 완공을 목표로 설립된다. 기공식 장면.

립하겠다는 서원이 항상 마음속에 하나의 점으로 남아 있었다. 인생이라는 것은 생로병사(生老病死) 그 자체이다. 부처님의 생각과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부산불교요양병원을 어르신들을 위한 극락정토로 만들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이어진 부산 영주암 회주 정관 스님, 김영

환 前 부산광역시장 등 내빈들의 축사 이후에는 마지막 순서로 첫 삽을 뜨는 시삽이 사부대중 200여명의 축하 속에 진행됐다. 한편 부산불교요양병원은 지하 2층, 지상 12층 건물로 12층 법당을 포함한 총 210개의 병상이 갖춰진다.

김니영 객원기자

# 부산불교 포교, 과거에서 미래로

###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학술세미나 개최

부산불교의 미래 방향을 논의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동아시아 불교문화학회(회장 이진오 부산대교수) 학술세미나가 7월 11일 양정 부산불교회관에서 개최됐다.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와 현대불교연구원(원장 무관)의 주최로 열린 이번 학술세미나는 ‘부산불교 포교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주제로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가량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현역 전 금정중학교장은 기초 발표에서 “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 활동은 한때 부산 시내 전 대학에 조직되어 2천여명에 이르렀으나, 현재는 5개 대학에만 있으며

총 회원은 100여명 밖에 안 된다. 또한, 대부분이 활동을 중지한 상태다. 대불련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부산불교 포교에서 청년층의 참여도가 증가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서 박경수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과 이사 정승안은 ‘부산 불교 청년회 포교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청년 불자의 재생산을 위한 체계화된 교육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청년불자를 양성하기 위한 조직 재정비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마지막 발표자인 김광호 금화사 초등불교학교장은 ‘어린이 포교가 불교의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학술세미나 장면

미래다 라는 주제로 부산지역 내 어린이 포교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기초발표 후에는 장재진 동명대 교수, 송재근 창원대 교수, 김준호 부산대 교수의 집진으로 부산불교 포교의 향후 행보에 대한 열린 토론이 펼쳐졌다. 이번 세미나에는 박영범 부산교수불자연합회장을 비롯한 관련 학자 및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다. 김니영 객원기자

# 자비의 물결, 부산 광복동 거리 적서

### 2014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 부산서 회향

전국 114개 모금소에서 거러온 페인을 펼치는 ‘2014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이 7월 6일 부산 광복동 패션거리에서 회향했다.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홍) 부설 사단법인 날마다좋은날이 주최하는 행복바라미는 6월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막식을 갖고 수원,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총 5개 주요 도시에서 15일 동안 어려운 이웃을 위해 불자를 포함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펼쳐왔다.

현금은 물론 신용카드 단말기를 도입해 모금의 투명성과 참여도를 높인 행복바라미 캠페인은 인디밴드 공연, 행복바라미 만들기, 페이스 페인팅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의 대미를 부산에서 장식했다.

또한, 前 조계종 포교원장 혜승스



감로사 주지 혜승 스님이 카드단말기 기부 시연을 하고 있다.

님, 범어사 부주지 법산스님, 제14교구신도회 이윤희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신용카드 단말기 시연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장려하기도 했다.

혜승 스님은 “불교가 추구하는 것은 타인과 함께하는 행복이다. 지금 내리고 있는 자비의 비가 전국 곳곳을 적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회향식에는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우천 속에서도 열린 모금 열기가 지속됐다.

김니영 객원기자

# 역대조사 위한 전통다례 문화축제

### 포항불교사암연합회 7월 5일 개최

포항불교사암연합회(회장 덕화)는 7월 5일 지역민을 위한 ‘전통다례 문화축제’를 열었다.

포항 내연산 보경사(주지 철산)에서 경상북도, 포항시, 영남불교봉사단 임정희, 포항불교신도단체연합회 정각희 등의 후원으로 열린 이 행사에는 보경사 회주 법달 스님, 포항불교사암연합회 회장 덕화 스님, 영덕불교사암연합회 회장 현담 스님, 보경사 주지 철산스님, 충효사 회주 해공 스님, 행사추진위원장 준제 스님 홍보부장 청담 스님, 위덕대학교 김경기 총장, 시의회위원장, 기관 단체장 등 사부대중 2천여명이 동참했다.

행사추진위원장 준제 스님은 “앞으로 고종과 학술세미나를 통해 미래불교를 위한 역사 인프라 구축에



포항불교사암연합회 전통다례 문화 축제

우리 포항불교가 앞장서자”고 강조했다.

이어, 포항불교사암연합회 회장 덕화 스님은 봉행사에서 “불교역사의 중심에 있던 포항불교문화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해석하여 다음 세대에까지 계승 발전시키자. 지역 선사님들의 위대한 업적들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의 첫단계로 추모다례제를 봉행하게 되었다”면서 행사 취지를 전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타향살이, 부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요”

### 삼광사 베트남 결혼 이주민 및 근로자 법회 마련

부산 천태종 삼광사(주지 무원)가 베트남 결혼 이주민 및 근로자들을 위한 법회를 7월 7일 경내 법화당 문 화실에서 봉행했다. 베트남에서 온 티프영탄 스님의 집진으로 베트남 불교의식과 함께 시작한 이번 법회에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 결혼 이주민 및 근로자들을 포함한 베트남 불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다문화센터 회장이자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은 인사말에서 “머나 먼 타국에서 부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을 위해 삼광사는 365일 24시간 법당을 개방하겠다. 부처님께 참배하며 위안을 얻으시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티프영탄 스님은 “오늘 법회를 통해 부처님의 말씀을 이행하여 자신을 되돌아보고 생활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 믿는다. 이렇게 베트

남에서 온 우리를 위해 기꺼이 공간을 내어주시고 따뜻한 법석을 마련 해주신 주지 무원 스님께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베트남에서 온 결혼 이주민 후인 응옥건(26)은 “삼광사에서 부처님을 보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졌다”며 법회를 마련해준 삼광사에 고마움을 표했다. 한편 베트남 불자의 말씀을 이행하여 자신을 되돌아보고 생활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 믿는다. 이렇게 베트

김니영 객원기자



세계불교 고승 및 최고 지도자들의 모임 1080인 委員會. 대한불교 종정단. 고승단. 종단. 대중사. 자문단

## 世界佛教 指導者 合同 金剛戒壇 & 法王廳 中央政府 閣僚 任命式

주최 : 사단법인 : 세계불교 법왕청. 종교법인 : 국제불교 지도자 협회, 대한불교 종단총연합 협의회.

### 제 6회 7월 29일 각료 임명식 & 대중사 품수 수여식

오후 3시 정각 / 하림각 : 02)396-2442 종로구 부암동 162-3

각종단 종정큰스님, 총무원장님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수천마디의 말보다 단 한번의 행이 필요합니다.

승려들의 수행 풍토 쇄신을 도모하여 불교의 질적 성장과 정화와 개혁의 첫발을 내딛습니다 .

1080명의 숨은 인재를 계속적으로 발굴하여 **각료 임명**과

※ 350여 군소종단이 하나되어 **합동 금강계단 품수**를 지속적으로 봉행하고자하니 뜻이 있으신 스님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세계불교 법왕청 중앙정부 장관급 각료 명단

불원 보각 혜승 대봉 도명 해선 대풍 성각 지암 도암 혜월 현담 경오 영각 남륜 청운 돈조 보현 대경 도안 법상 도월 대연 혜운 송현 진관 지우 종선 도암2 능허 태봉 청산 성군 정오 법현 지암2 향운 보성 법성 송운 도연 경현 동월 법인 법광 제성 법지 송몽 법주 도일 구암 심오 해광 석담 원광 청광 해상 해관 도경 성보 보명 현덕 보운 무량수 혜정 법조 해공 성범 지연 다정 구암 혜일 석장원 보현2 범용 지훈 법상2 각운 정음 선명 혜륜 혜진 이한규홍보실장 금조 목성 만근 외 500인

**AGGA MAHA SADDHAMMA JOTIKAD HAJA 추진위위원회 위원장 대승정 목탁 합장**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법왕청 대표전화 02)733-5665. 팩스 02)733-5671. H·P 011-229-6061